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7월 12일 (제80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에배 워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대충을 잡아라

6·25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처럼 그 당시 우리의 육체도 약이 없어서 폐허가 된 때가 있었다. 이 때 미국으로부터 산토닌이라는 약을 제공받아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 대변으로 회충은 물론 요충, 십이지장충이 나와 얼굴이 피고 힘도 났었다. 그런데 약으로도 안 죽는 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대충이다.

대충은 우리 삶을 갉아먹는 기생충으로, 아무리 근사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대충이란 놈이 있으면 무산되고 유산될 수밖에 없다. 대충이란 기생충을 반드시 죽여야 우리 삶이 살아난다. 대충이란 놈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를 우리는 인재(人災)라고 부른다. 인재란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난을 천재(天災)에 상대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이는 곧 대충이 원인이다. 와우아파트 사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일, 작금에 땅이 꺼지는 싱크홀(sinkhole) 등, 모두가 대충이 빚어낸 참극이다. 한 마디로 안전 불감증은 대충이 주는 고질병인 셈이다.

대충이란 정신을 가진 자는 늘 마음의 주머니에 차선책을 넣고 있는 자다. 매사 배수진을 쳐서 최선을 다해야 하건만 대충하다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취하려는 것이니 명품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한신이 배수진을 쳐서 오합지졸의 십만 군사로 항우의 백만 대군을 물리친 것을 보라. 이유는 하나다. 대충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하셨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대충한다면 무엇을 이루겠는가.

나는 매사 최선을 다한다. 차선책을 생각지 않는다. 왜냐? 영·혼·육의 승리와 성공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는 말씀이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느냐? 대충이라는 균을 잡고 매사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이미 성경 잠언에 여러 번 언급된 말씀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잠19:21).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잠20:24).

이 말씀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결국엔 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 인간이 아무리

임없이 주문하고 또 주문하셨다. 비록 그 일을 수행할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경되는 집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면이 없진 않으나 그 결과가 아름답게 성취되는 경험을 통해 그런 목사님의 치열한 도전의식이 결국 목사님의 성공 비결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고 목사님은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카니발 목사와 집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카니발 목사는 자신의 교인들이 8천명은 족히 되니 집회장을 채우는 일은 별거 아니라는 자세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첫날 바닥조차 다 차지 않

음이 이루어지기까지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다. 단에 서기까지 하루 7시간 기도예배 전무하시고, 일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어프로치(approach)를 시도하신다. 고뇌하고 번민하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섬세한 노력을 기울이신다. 손 놓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함에 있어 늘 자문자답해 볼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후회 없는 도전을 펼쳤는가? 우아한 백조의 호수가 그 아름다운 자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6.25 평화통일 기도성회(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노력해봐야 소용없단 말인가? 아니다. 전쟁의 승패,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니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다. 곧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아도 그냥 땅에 묻어놓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즉시 나가 최선을 다해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큰 상으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매사 맡은 일에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번 6·25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진행하며 목사님이 거듭해서 보내신 문자의 내용이다. 그러시면서 집회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회 성공을 위해 끝

았다. 고뇌와 번민의 밤을 보내며 절치부심한 결과, 마지막 날에는 결국 집회장을 가득 채웠지만, 그 기억은 늘 우리 앞에 반면교사가 되어 경고해주고 있다. 작은 일이라고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성경 여호수아 7장에도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군대가 작은 아이성을 우습게 보았다가 참패를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성경은 곧 우리의 거울이라 하지 않는가(고전10:11)?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눅16:10).

“내가 단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모두 내 뜻대로 끌려온다.”

이는 목사님의 믿음이지만, 그냥 선포하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믿

를 연출하기 위해 수면 아래서는 수천, 수만 번의 자백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공짜는 없다. 내가 고뇌하고 번민하며 땀을 흘린 만큼, 결과로 보상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기 바란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울이는 최선의 노력은 결코 허공을 치는 헛수고가 아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천군천사들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기에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씨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결실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126:5).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

◆중·고등부: 7월 27일(월) ~ 29일(수) ◆청년·대학부: 7월 29일(수) ~ 31일(금) ◆장성예수중심기도원 ◆문의:02)533-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5:1~12)

복있는 자, 발로 차지 말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쟁력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복 있는 자를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복이 복인 줄 모르고 복 있는 자를 발로 차는 자들이 있습니다. 꼴을 따려는데 꼴통을 발로 차는 격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복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 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창39:5).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사모하여 유혹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보냅니다. 복 있는 자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복은 복 있는 자를 따라다니는 법, 요셉이 옥에 갇히자 복은 전옥에 쏟아졌고(창39:21), 요셉을 총리대신으로 앉힌 바로에게 복이 넘쳐 애굽이 번영하고 강성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창47:13~26). 문득 우리 성도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들 부부는 첫 결혼에 실패한 후 재혼한 커플이었는데, 그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인즉 “누군가 복을 찬 겁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복덩어리인데요.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지요. 제가 그 복덩어리를 주운 셈이고요.”라고 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자고로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는 법 아니까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그런 자입니다. 라반도 야곱으로 인하여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창30:27).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야곱의 마음이 이미 떠난 다음에 라반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야곱의 임금을 착취하고, 또 라헬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그의 언니 레아와 먼저 혼인케 해서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야곱이 여기에 무슨 미련이 있었습니까? 금의환향하고픈 마음뿐이지요. 사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등지고, 다윗까지 원수 삼더니 그 결국이 정말 비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도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단 한 명의 혈육을 쫓겼는데 그가 바로 조카 롯입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을 지나온 아브라함에게 금은과 육축이 많았고, 더불어 롯

도 양과 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을 지키는 목자들 사이에 좋은 목초지와 샘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을 불러 갈라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면을 둘러보고는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 떠났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결국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중보로 구출되었으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는 술에 취해 딸들과 동침하여 모압과 벤암미 두 아들을 낳아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

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창19: 30~38). 롯이 큰 복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옴에게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롯과 오르바입니다. 나옴은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나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는 다시 고향땅으로 고뇌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 나옴은 젊어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나옴이가 거듭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자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친정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롯은 나옴이를 붙들고 울며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1:16). 롯이 하도 강경하니까 하는 수 없이 나옴이는 롯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

다. 그 결과 롯은 계대의식을 따라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룻4:13),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대복을 받습니 다(마1:5). 나옴이가 늙은 과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그와 함께 한 롯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나옴이를 떠난 오르바의 이야기는 그 후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오르바처럼 복 있는 자를 떠날 것이 아니라 롯처럼 복 있는 자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사는 뒷집 지고 그 날이 오기만 을 기다 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요6:67)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때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요6:68). 예수님을 붙든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다 영생의 길로 갔지만, 예수님을 떠난 가롯 유다는 결국 자살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복의

복이 복인 줄 알아야 복이 내 것이 된다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난 삶이 어떠한지 잘 말씀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의 비유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눅15:11~32).

저는 농사꾼의 자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농번기가 되면 법씨를 물에 담가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쯤 지나서 물에 뜬 법씨는 버리고 가라앉은 알곡만 눈에 심으셨습니다. 쪽정이를 심으면 논만 버리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 인생의 밭에 쪽정이를 심었고, 이세벨을 만난 아합 역시 쪽정리로 인해 인생 농사를 망친 사람입니다. 필리핀이 미국을 내치고, 아르헨티나가 영국을 내치고 국가적인 농사를 망쳐 삼류국가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복 있는 자, 복 있는 기업과 복 있는 땅을 보는 해안이 열려야 합니다. 복 있는 자와 동행하면 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지 않 습 니 다. 그는 엘리야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길갈에서, 벧엘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엘리사를 향하여 ‘가라’고 등을 떠밀었을 때도 그는 엘리야의 승천까지 지켜보며 그의 곁을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고 엘리야의 빈자리를 승계했습니다(왕하2:1~14).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골2:18~27). 그렇다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고난이 죄의 대가가 아니었기에 더욱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욥2:10)라고 아내에게 응수합니다. 그런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공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없이 범죄하고 돌이킬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돌이키시는데 염증을 내시고(렘15:6),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시는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다’ 하셨다(렘15:1).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3차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1차에 다니엘과 함께, 2차에 에스겔과 함께 끌려갔고, 3차 직전에 포로지에 먼저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죄는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는데 왜 고통은 자기들이 받아야 되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주셨다. ‘아버가 죄를 지으면 아버가 대가를 받고, 그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들이 받는 것이 나의 법이다. 아버가 죄를 지어도 아들이 의롭게 살면 나는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즉 구원도 개체요, 축복과 저주도 개체라는 것이다. 내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웬 조상 탓 하냐는 것이다.

요즘 세대도 거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의 인생이 엉망이 된 것이 전적으로 부모 때문이란단다. 부모가 가정적이지 않아서, 부모가 가난해서..., 본인이 하기 싫어 공부 안하고, 본인이 게으르고 놀기 좋아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어느 목사가 우리 교단 이름으로는 교회 부흥이 안 된단다. 본인이 게으른 것을 모른다. 어느 성도가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본

인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을 모른다. 언제까지 남 탓, 환경 탓만 하고 있을 건가? 사기 당하고 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만 탓하고 있다. 원인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모르니까 또 당하고 반복해서 또 남만 탓하고 다닌다. 아담도 그걸 몰라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어느 때든지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기회는 늘 노력하는 자를 따라다닌다. 열매는 내가 뿌린 만큼, 노력한 만큼 걷는 것이다. 뜯구름 잡으려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 찌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나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나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나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나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대로 국문할찌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찌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렘18:25~32). 이시대 목사

코뚜레 해야죠!

집 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두 마리의 송아지가 태어났거든요. 농부는 두 마리 송아지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자 농부는 송아지에게 코뚜레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코뚜레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농부가 대답합니다. “코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된단다. 그래서 아프지만 이걸 하는 거야.” 송아지는 눈물을 흘리며 “주인님, 코뚜레를 하지 않아도 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들을게요.” 농부는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한 마리에게만 코뚜레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코뚜레를 하지 않은 송아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코뚜레를 하지 않은 송아지가 조금씩 피를 부리더니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농부가 다가오면 뒷발질을 하기도 합니다. 점점 망나니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송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

다. 코뚜레를 뚫은 송아지가 궁금해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어디 갔냐고. 농부는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도살장에 보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나 훈계를 마치 코뚜레를 뚫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질질 끌고 다니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훈계하지 않아도 교회 잘 다니고 정직하게 잘 살 테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가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진한데요. 어느 순간부터 눈이 세상을 향하고, 조금 후에는 발이 세상을 향해 가고, 결국 아예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

우리 목사님은 행복한 노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갇혀 있는 것이 고맙고, 그 분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코뚜레를 하신 것입니다. 그 분이 어리석은 걸까요? 코뚜레 하시죠. 예수중심편집실



::성경에세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 말라

여보게!
나는 요즘 기도가 하나 늘었네. 바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 때문일세. 각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일어나고 있더군. 그러나 나는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네.

얼마 전에 나는 카카오톡을 통해 한 메시지를 전달 받았네. 서울시에서 동성연애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반대 서명에 동참하라는 내용이었네. 한 기독교 단체가 나서서 일을 하고 있더군. 어떻게 동성연애를 합법화 할 수 있단 말인가. 비정상적인 일인데 말일세. 마치 동성 연애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일을 정상이라 취급해야 선진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법이요, 비정상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

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1:26~27).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고 역행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다고 하셨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정상화할 수 있냐는 말일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연애 합법화에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으면 하네.

여보게!
이 이야기 좀 들어보게나. 원숭이가 어느 날 외출을 했다네. 한참을 돌아다니다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외눈박이 원숭이들만 모여 살고 있었네. ‘참 괴상하게도 생겼다’ 하고 신기하듯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의 놀이방식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거야. 또 그들이 먹는 것을 보니 여태껏 자신은 구경조차 못한 맛있는 것이어서 부럽기까지 했지. 이 원숭이는 슬슬 외눈박이 원숭이 곁으로 다가가 관심을 표했네. 그러나 그들은 두 눈을 가진 원숭이를 이상한 듯 쳐다보고 자기들끼리만 놀았지. 어떻게든 외눈박이 원숭

이와 함께 하고픈 두눈박이 원숭이는 고민하다 결단을 하네. ‘나도 외눈박이가 되면 저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는 돌 하나를 들어 자신의 눈을 쳐 빼낸 거지. 그리고 외눈박이 원숭이에게 가서 “나도 이제 외눈박이야.” 하자 그들이 환대를 해주며 친구로 맞아주었다네. 외눈박이가 된 원숭이는 행복했다네. 자신이 병신이 된 줄도 모르고 말일세.

요즘 외눈박이 원숭이와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하나 되고 싶어서 한 눈을 돌로 찌는 자들이 많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두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한 눈은 비정상이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요셉처럼 세상의 왕따를 당해도 두 눈을 고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두 눈 크게 뜨고 가야 갈 수 있거든.

누군가 자네를 꼬일 수 있네. ‘이게 옳은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한 눈을 빼라고 말일세.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게. 타협도 말게. 절대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는 없으니.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지난 7월 1일은 윤초(leap second)로 하루 24시간에 1초가 더 있던 날이었다. 윤초는 자연의 시계와 인간의 시계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1초는 그냥 ‘뚝뚝’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1초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 명왕성 탐사선 뉴호라이즌스가 16.26km를 날아가는 시간 1초, 포털 사이트에서 4만 8천여 건의 검색이 이뤄지는 시간 1초,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쳐서 이 공이 투수에게 돌아오는 시간도 1초, 이메일 239만 3,470통이 오고 가는 시간 1초, 세수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시간 1초, 420톤의 비가 대지를 적시는 시간 1초, 별의 날갯짓 200번이 일어나는 시간 1초, 달팽이가 1cm를 달리는 시간이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일본 세이코 시계 광고카피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처음 뵈겠습니다.” 1초의 짧은 말에서 일생의 순간을 느낄 때가 있고, “고마워요.” 1초의 짧은 말에서 사람의 따뜻함을 알 때가 있고, “힘내세요.” 1초의 짧은 말에서 용기가 되살아날 때가 있고, “축하해요.” 1초의 짧은 말에서 행복이 넘칠 때가 있고, “용서하세요.” 1초의 짧은 말에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고, “안녕.” 1초의 짧은 말에서 일생 동안의 이별이 될 때가 있다. 이처럼 1초는 소중한 순간이다.>

오늘 1초를 가치 있게 사용되었습니까? 주님! 주님! 주님! 3번만 불러봅시다. 주님을 3번 부르는 데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송헌혜
charisma0691@hanmail.net

기도할 수 없이 힘들 때

최근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떠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사람들 만나고, 겉으로 보면 모든 일상이 예전과 똑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 다. 몸 안에 우울이 가득 차서 누가 조금이라 도 건들면 곧바로 터질 것만 같았지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잘 알지만, 일단 마음이 지쳐 버리자 기도가 잘 안됐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상태로 2주가 흘렀지요. 그러던 중 출근길에 늘 듣던 팝송 말고 찬양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번득 들었습니다. 여러 CCM을 찾아보다가 어노인팅의 ‘성령이 오셨네’를 골라서 재생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제 귀에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

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찬양이 귀를 타고 들어와 제 심령을 가득 채웠고, 순식간에 눈시울이 뜨거워져버 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지. 맞아, 성령님은 내 인생에 친히 찾아 오셨지... 찬양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귀로 듣는 중에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입술로 따라 부르는 중에 서서히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지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고, 이 땅의 사라질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게 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요,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해주지요.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환란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아들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견뎌

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신력이 유난히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 다. 그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인간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주셨기 때 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라는 그의 고백을 다시 말하면 ‘호흡이 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런던 브루넬 대학 코스타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 니다. “음악은 법적으로 허용된 약물에 가깝다.” 사는 동안 우울한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찬양은 비타민처럼 영혼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지켜줄 테니까요. 몸을 위해 꼬박꼬박 비타민을 챙겨 먹듯이 우 리의 영혼을 위해 찬양을 챙겨줘야겠습니 다.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일 테니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나이는 숫자다!

“내 나이 96세인데 난 아직도 일하고 싶다.” 한국 철학계의 대부로 불리는 김형석 교수(연세대 명예교수)가 며칠 전 TV프로에서 고백한 내용인데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건강의 요건을 묻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오래 일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 “젊다는 것은 생활공간이 넓다는 것이며, 늙었다는 것은 생활공간이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나이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닌 나의 활동영역으로 젊음과 늙음을 가늠한다니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아 없어지는 것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 소크라테스의 원숙한 철학은 70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50세까지 학생이었다고 하니 배움과 나이는 전혀 무관한 듯합니다. 또한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벽화’를 완성한 것은 90세 때였다고 하니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는 ‘오텔로’를 80세에 작곡했고, 미국의 부호 밴더빌트는 70세 때 산업용 수송선 1백 척을 소유했는데 83세로 죽기까지 1만 척으로 늘렸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합니다. 또한 문호 괴테는 대작 ‘파우스트’를 60세에 시작하여 82세에 마쳤다고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앞으로 30년을 다시 뛰신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열정의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열정은 사람을 젊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나이라는 숫자에 가두어선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열정이 능력이다. 열정이 없다면 성취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움직여야 열 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활동영역을 넓혀주세요!

Good News

일본 다이쇼시대의 유명한 철학자 ‘다카바타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 학교 때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할 정 도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 다. 그런데 우연히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라는 책을 읽고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 여 신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신앙마저 버렸습니다. 그는 일본 최초로 마르크스 의 ‘자본론’을 완역하여 출판하고, 일본에 서는 이 책 밖에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완전히 배도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43세에 급성 폐결핵에 걸

려 끝내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는 성경과 찬송을 찾아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마감할 시간이 임박해오자 그의 얼굴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다고 합니다. 곁을 지키던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그는 힘은 없지만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네. 과거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청산하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로 간다네.” 이렇게 말하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으로는 죽음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는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천 년, 만 년 살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세상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죽은 뒤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1:9). 망설이지 말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셔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는 성경속의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를 칭송하는 많은 설교와 기록들을 듣고 읽어 왔다. 나사로의 집에 서로 다른 두 자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했던 마리아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아들딸들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집안의 소소한 일을 감당하며 분주한 마르다와 같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과연 성경 속의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그들만 칭송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딸이 있다. 그 딸은 성경 속의 마리아처럼 온전히 자신의 일

에만 전념하고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랑스런 딸이다. 그러나 박사 논문을 준비하며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지금의 딸아이의 모습을 예전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하며 지내던 모습과 비교해보면,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마르다처럼 어미 곁에서 어미의 손발이 되어 함께했던 그 시절의 딸아이도 참 많이 사랑스러웠다. 우리 집의 그녀처럼 요즘 공부에 전념하고 자기계발에 온전히 몰두하는 자녀들이 많다. 그런 자녀를 배려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그들에게 일체의 가사 일을 맡기지 않을 뿐더러 소소한 대화의 시간도 가 능하면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부모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음 한편은 많이 서운하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해서 꿈과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

만, 기본적으로 가정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 슬픔, 행복을 나누는 지상의 천국이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인간지정이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자녀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성공이 되지 않을까? 자녀의 성공을 위한 발걸음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리아의 삶도 좋지만,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마르다처럼 이것저것에 관심 갖고 분주할 수 있는 마음의 씩씩함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때와 시기에 맞는 역할이 사회를, 가정을, 교회를 밝고 환하게 만든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